여호와가 보시는 중심(삼상16:1-7) 11/15/2026

마침내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준비된다. 한 시대가 바뀔 때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시고, 그를 기름부어서 미래를 준비하신다. 본문 1절에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 사람인 이새의 아들이었음을 밝히신다. 하나님의 오랜 준비와 예언의 성취이다(창49:10).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왜 다윗이었느냐는 것이다. 그 위로 외모나 능력을 갖춘 일곱 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가장 어린 다윗이었다. 오히려 그 형들은 주의 종 사무엘조차 외모에 감탄할 만큼 뭔가를 갖춘 사람이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7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표현 속에는 여러 의미가 있다.

첫째는 "중심"이라는 히브리어는 그 사람의 마음, 곧 생각, 감정, 의지를 총괄하는 내면을 의미한다.

평소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의 인격, 삶을 좌우한다. 사람을 오래 사귀어 봐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이것이 드러난다. 그러나 창6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주로 외모를 본다. 그래서 사기도 당하고, 평생 속고 산다. 심리학에서도 그 사람의 첫 인상, 외모가 그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첫 번째 요인(45%)이라고 본다.

둘째는 그 사람의 삶의 성실함이다. 실제로 다윗에게는 양을 칠 때도 이 성실함이 있었다고 했다(시78:72).

아버지가 맡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배웠고, 그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비밀 병기가 된다.

셋째는 그 사람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다. 그가 양을 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왕이 되었을 때에, 부끄러운 실패를 했을 때에 그가 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한 간절함이 시편에 기록된 것이다.

이런 삶을 만들어내는 핵심이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게 하는 키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에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다(행13:22).

다윗이 아무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다. 그런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된다(대상29:28).

도대체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평생 끝까지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1. 복음을 정말로 깨닫는 것이 시작이다. 단순히 아는 것은 지식이고, 깨닫는 것은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

복음은 창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여 저주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언약이다(엡2:8 "은혜의 선물").

죄인된 우리를 중보해주시는 더 좋은 언약이고(히8:6),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한 새 언약이다(히9:15).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했다(눅2:10)

1)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다. 다윗의 중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공의다. 공정함, 거기서 나오는 심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성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모든 인생에 심판이 임했고(롬5:12), 마귀도 영원한 심판에 간다(마25:41)

둘째는 사랑이다. 자기가 창조하고, 택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아직 죄에 빠져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다(롬5:8)

2)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것 세가지가 담겨 있다.

①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가진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힘 있는 자, 약한 자, 편견이 없다. 마치 부모의 마음과 같다.

②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다.**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요3:16). 그래서 타락한 인생에 창3:15, 3:21의 복음을 주신 것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 시작되었다. 그 배후에는 속이고, 무너지게 한 사단이 있었다(요8:44)

모든 인생이 그 죄의 본성을 이어받고, 계속 사단에게 사로잡혀 살고, 당하는 피해자가 되었다(요일3:8).

각 사람에게 숨은 상처(가문의 문제, 성장 과정, 과거의 경험)들이 있고, 그것이 평생 올무가 되고, 영적 문제로도 발전하는 것이다(행10:38). 성격장애, 공황 장애, 결벽증, 우울증, 중독증, 정신 문제가 전부 상처와 연결된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그것을 치유하러 오신 것이다(사61:1)

③ **모든 인생을 구원하고,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다.**

그 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능력을 확증하신 것이다. 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누구라도 치유될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부활하면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고전15:25),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롬6:4).

그래서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바울 같은 사람도 세계복음화을 위해 쓰임받고. 그 능력에 대한 고백을 한다(롬1:17)

2. 복음을 체험할 때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 우리가 생명을 걸만큼 소중한 복음이 된다(행20:24)

1)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체험하라. **성경에는 율법과 복음, 두가지가 다 있다.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 .**

율법을 대할 때는 인간의 죄성, 무능, 악함을 보라. 그래야 인생은 항상 겸손해질 수 있다. 그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복음이다. 때로 실패할 때는 잠시 주시는 징계도 사랑이다(히12:8)

2) 기도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연약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고통 당하던 내 안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히1:14), 그때에 사단의 권세가 꺽인다(막9:29). 기도로 모든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라.

3) 내가 겪는 문제, 고통 속에서 복음을 체험하라. 다윗, 베드로처럼 잠시 고통, 실패를 허락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는 존재구나", 그래서 내게 오직 복음이 필요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눈물도 나오고, 거기서 기적도 나온다(왕하20:5, 딤후2:4)

3. 이 복음을 나눌 때에 그 복음의 축복이 배가 된다. 그것이 전도와 선교이다.

복음 때문에 핍박도 오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은 100배라고 했다(막10:29-30).

1)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답과 빛을 전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들 곧 하나님의 메센저들이다(Herald of God, 찬송가의 "빛의 사자들이여").

나의 부족함과 고통과 눈물까지도 증거가 되게 하시는 이유이다.

2) 전도와 선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워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아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며 내가 행복해진다.

누군가를 만날 때 전도 대상자로 보라. 전도를 계획하고,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라.

3) 전도와 선교는 복음의 절대 결론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가라고 한 것이다. 그 이후에 끝이 오고(마24:14),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

결론-하나님이 내게서 보고자 하는 중심은 "복음"에 대한 중심이다. 나를 살리고, 모든 인생을 살리시는 마음이다.